

샤를 페로 (1628~1703)

프랑스의 시인이며 소설가이자 17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비평가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변호사로 일하다가 1654년 이후 문학과 그림을 즐기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다. 1670년에는 아카데미프랑세즈 회원이 되었고, 특히 아카데미프랑세즈의 집회에서 낭독한 시 《루이 대왕의 세기》(1687)는 진보파와 보수파 사이의 이른바 ‘신구논쟁’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거위 아주머니 이야기》(1697년)는 페로가 손자들을 위해 민담을 빌어 쓴 것으로 이 동화집 안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잠자는 숲 속의 공주》, 《푸른 수염》, 《빨간 모자》, 《신데렐라》, 《장화를 신은 고양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의 동화집은 현실과 꿈의 세계가 잘 조화되고 간결한 문체 속에 재치가 빛나고 있다. 당시 프랑스 귀족들은 옛이야기를 품위가 없다면서 무시했지만, 페로는 옛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을 어린이들에게 들려 주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를 ‘프랑스 아동 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데렐라」는 유럽에서 옛날부터 구전되던 대표적인 의붓자식 이야기를 페로가 《상드리용 Cendrillon》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것이다. 상드리용은 ‘재를 뒤집어 쓰다’라는 뜻으로 항상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일을 한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다. 이야기 속에서 신데렐라는 계모와 이복언니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착한 마음씨 덕분에 왕자와 결혼하는 행운을 얻게 된다. 원래 구전되던 원작은 잔인한 장면이 많았다고 하나, 그런 부분은 작가가 많이 삭제하고 결말 또한 두 언니들을 용서하고 좋은 귀족 배를 구해 주는 것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다.

「잠자는 숲 속의 공주」는 초대받지 못한 요정의 저주로 100년 동안 잠에 빠진 공주의 이야기이다. 100년 동안 가시 넝쿨에 뒤덮인 왕궁, 그 속에 갇혀 있는 아름다운 공주, 그리고 공주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 줄 왕자가 올 때까지 지속될 달콤한 기다림과 영원한 행복의 약속은 자칫 평범해질 수 있는 동화의 결말을 몇 세기가 흘러도 사랑받을 수 있게 해 준 힘이 되었고, 또한 이 동화가 가진 환상과 낭만의 진수이다.

신데렐라

[제1장] 사악한 계모

p. 12-13 옛날에 한 남자가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신데렐라였다. 그녀는 그 나라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소녀였다. “넌 최고의 딸이란다.” 하고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말했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어머니는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 그녀는 신데렐라에게 자신의 임종을 보러 오라고 했다. 그녀는 신데렐라에게 말했다. “항상 친절하고 참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네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다음 그녀는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 신데렐라는 며칠 동안 울었다. 아버지 역시 죽은 아내로 인해 슬펐다.

p. 15 4년 후,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다른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친절하고 상냥한 척했다. 사실 그녀는 주위에서 가장 거만한 여자였다. 그녀는 이전의 결혼에서 얻은 두 딸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꼭 닮아 거만하고 질난 체했다. 그 여자는 신데렐라의 아버지를 감 같이 속였다. 마침내 아버지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다.

계모는 친절했지만,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뿐이었다. 그녀는 심술궂고 거만하게 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예쁜 신데렐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미워했다.

p. 16-17 계모는 신데렐라에게 모든 집안일을 시켰다. 신데렐라는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모든 방을 청소해야 했다. 신데렐라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다. 그녀는 지저분한 다락방에서 살아야 했다. 그녀는 짚으로 만든 낮은 침대에서 자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언니들은 가장 멋진 침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반면에, 신데렐라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이복 언니들은 늘 신데렐라를 놀려댔다. “이 멍청이! 넌 정말 지저분하고 못생겼어.” 신데렐라는 늘 매우 피곤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p. 18 아버지가 계모에게 조종당하고 있어서 신데렐라는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다. 신데렐라는 일을 마치면, 굴뚝 옆 한 구석에 앉아 있곤 했다. 그곳에는 항상 재가 많이 있었고, 그녀는 아주 지저분해지곤 했다. 그녀의 지저분한 겉모습 때문에, 그녀의 언니들은 그녀를 누더기 신데렐라라고 불렀다. “누더기 신데렐라, 늙은 마녀처럼 지저분하고 못생긴 누더기 신데렐라.” 그들은 신데렐라를 놀렸다. 비록 신데렐라가 지저분해 보이긴 했지만, 그녀는 언니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p. 20-21 어느 날, 왕의 아들이 파티를 열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파티 중에서 가장 성대한 파티가 될 것이다. 파티는 사흘 동안 계속될 것이다. 무도회가 열릴 것이고, 음식과 마실 것도 많을 것이다. 젊은 이복 언니들은 그 파티에 초대받았다. 그들은 파티에 가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그들은 최고로 멋지게 보이고 싶었다. 그들은 신데렐라를 불렀다. “우리 머리를 빗겨 줘. 우리 구두도 닦아.” 그들이 명령했다. 신데렐라는 언니들이 이 중요한 행사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부지런히 도왔다.

p. 22-23 “신데렐라, 파티에 가고 싶지 않니?” 언니들이 신데렐라에게 물었다. “언니들은 절 놀리지만 해요.” 그녀가 말했다. “전 그런 화려한 장소에 가선 안 돼요.” “네 말이 맞아.” 그들이 대답했다. “파티에서 지저분한 여자애를 보면 사람들이 웃을 거야.” 이복 언니들은 매우 심술궂었다. 그들은 신데렐라를 놀려대는 것을 즐겼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엄마와 함께 파티에 가기 위해 떠났다. 신데렐라는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제 2 장] 왕자님의 파티

p. 26-27 그녀의 대모인 요정이 울고 있는 신데렐라를 보았다. 그녀가 물었다. “무슨 일이니, 나의 사랑스러운 아가야?” “저도... 저도...” 신데렐라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녀의 대모는 신데렐라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었다.

“도 파티에 가고 싶은 거로구나. 그렇지?” “네.” 신데렐라는 크게 한숨을 쉬며 울었다. “알았다.” 그녀의 대모가 말했다. “네가 갈 수 있도록 해 주마. 정원으로 뛰어 가서 호박을 가져오렴.” 신데렐라는 얼른 커다란 호박을 대모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대모는 요술 지팡이로 호박을 치면서 “아브라카다브라.” 하고 주문을 말했다. 호박은 순식간에 멋진 마차로 변했다. 신데렐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p. 28 그런 다음 대모는 자신의 쥐뿔을 꺼냈다. 그 안에는 생쥐 여섯 마리가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로 생쥐들을 하나하나 가볍게 쳤다. “아브라카다브라!” 생쥐들은 모두 멋진 말로 변했다. 그런 다음 대모는 신데렐라의 땃에서 쥐 한 마리를 골라 미부로 변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대모는 신데렐라에게 말했다. “정원으로 다시 가서 도마뱀 여섯 마리를 찾아오렴.” 신데렐라가 도마뱀 여섯 마리를 가져다 주자, 대모는 그것을 여섯 명의 호위병으로 변하게 했다. 신데렐라를 위해 멋진 탈것이 준비가 되었다!

p. 30-31 “정말 기뻐요!” 신데렐라가 말했다. “그런데 이 지저분한 옷을 입고 가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라.” 대모가 말했다. 그녀는 지팡이로 신데렐라를 가볍게 쳤다. 그 순간, 그녀의 옷은 금과 은으로 된 천으로 바뀌었다. 그런 다음 대모는 신데렐라에게 유리 구두 한 켤레를 주었다. 그것은 신데렐라가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예뻐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데렐라가 말했다. 그런 뒤 그녀는 마차에 올라탔고 떠날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대모는 그녀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자정이 지나서까지 있으면 안 된다. 자정이 지나면, 마차와 다른 것들이 이전의 모습대로 되버릴 거야.” “자정이 되기 전에 파티에서 나올게요.” 그녀는 대모와 약속했다. 그녀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무척 들떠 있었다.

p. 32-33 왕자는 고귀한 공주기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달려 나갔다. 그는 신데렐라가 마차에서 내리자 손을 내밀었다. 그는 다른 모든 손님들이 있는 파티장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모두 조용해지더니 춤추는 것을 멈추었다. “정말 아름다워!” 하는 사람들의 속삭임 외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왕조차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왕자는 그녀를 파티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데려갔다. 그 후 그들은 춤을 추러 갔다. 그녀는 파티에서 춤을 가장 잘 추었다. 손님들 모두 그녀를 보고 감탄했다.

p. 34-35 맛있는 음식이 나왔지만 왕자는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름다운 공주를 바라보느라 너무 바빴다. 신데렐라는 언니들 옆에 가서 앉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다. 그녀는 그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다.

얼마 후, 신데렐라는 시계가 11시 45분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 갔다.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대모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왕자가 내일 파티에 자신을 초대했다고 말했다. “내일 파티에도 꼭 가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p. 36-37 다음 날 두 언니들은 파티에 갔다. 신데렐라의 대모가 급히 와서 신데렐라의 파티 준비를 해 주었다. 그녀는 전보다 더 아름답게 옷을 차려 입었다.

파티에서 왕자는 항상 신데렐라의 곁에 있었다. 신데렐라는 파티에서 매 순간이 즐거웠다. 그녀는 대모가 그녀에게 한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시계가 12시를 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다. 왕자는 뒤따라갔지만, 그녀를 잡을 수 없었다. 그녀가 너무 빨리 뛰어서 유리 구두 한 짝이 발에서 벗겨졌다. 그녀는 돌아갈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구두 한 짝을 두고 와야 했다. 왕자는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주워들었다.

[제 3 장] 유리 구두

p. 40-41 왕자가 날 사랑하기만 한다면.” 큰언니가 말했다. “난 왕자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어.” 작은언니가 외쳤다. 두 이복 언니들은 잘생긴 왕자와 결혼하는 것을 꿈꿨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비스러운 공주를 질투했다.

젊은 왕자는 실제로 이 신비스러운 공주를 사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왕자가 발표했다. “난 이 유리 구두에 꼭 맞는 발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것ियो.” 왕국 전체가 들썩거렸다. 모든 여자들이 그 유리 구두를 신어 보고 싶어 했다. 모두 그 구두가 자기에게 맞기를 바랐다.

p. 42-43 왕은 그 유리 구두의 주인을 찾을 사람을 임명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는 왕국의 모든 여자들에게 그 구두를 신겨 보기 시작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구두가 맞는 척했다. 그들 모두 왕자와 결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게 뻘뻘했다. 어떤 여자도 왕이 임명한 그 남자를 속일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왕국에 사는 여자들 대부분이 그 유리 구두를 신어 보았다. 오직 한 집, 신데렐라의 집만 남았다.

p. 44-45 왕이 임명한 그 남자는 그 구두를 두 언니들에게 가져갔다. 그들은 구두 속에 자신들의 발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갖은 짓을 다 했다. 아무리 열심히 해 봐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많은 헛된 시도 끝에, 그들은 결국 포기해야 했다.

언니들은 울기 시작했다. 그 둘은 너무 슬펐다. 왕자와 결혼하겠다는 그들의 꿈은 끝이 났다. 신데렐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것이 자기 구두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인내심이 많았다. 두 언니들의 차례가 끝나자,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그게 저한테 맞는지 볼게요.”

p. 46-47 그녀의 언니들은 웃으며 그녀를 놀리기 시작했다. “이 구두가 네 더러운 발에 맞을 리 없어.” 그들이 말했다. 궁전에서 온 그 신사는 신데렐라를 보았다. 그녀는 비록 지저분했지만,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가 말했다. “왕국의 여인은 모두 이 구두를 신어 봐야 합니다.” 그는 신데렐라에게 앉으라고 했다. 그는 그녀의 발에 구두를 신겼다. 신발이 아주 쉽게 들어가자, 그는 깜짝 놀랐다. 구두는 그녀의 발에 꼭 맞았다! 그녀의 두 언니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p. 48-49 그런 다음 신데렐라는 주머니에서 다른 한 짝의 구두를 꺼냈다. 두 언니들은 더욱 더 놀랐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들이 외쳤다.

그때 그녀의 대모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지팡이로 신데렐라의 웃을 가볍게 쳤다. 웃은 그녀가 입었던 그 옷들보다 훨씬 더 멋졌다.

이제 그녀의 언니들은 파티에 왔던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신데렐라임을 알았다. “제발, 제발 우리를 용서해 줘.” 그들이 빌었다. “우리가 한 짓 정말 미안해.” 신데렐라는 그들을 안으며 말했다. “진심으로 언니 둘 다 용서해요.”

p. 50 그녀는 젊은 왕자에게 인도되었다. 왕자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건 첫 눈에 반한 사랑이었소.” 신데렐라도 진정으로 왕자를 사랑했다.

머칠 후, 왕자는 그녀와 결혼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결혼식에 왔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 싶어 했다. 신데렐라는 아름다운 만큼이나 착했다. 그녀는 두 언니들에게 궁전 안에서 살 집을 주었다. 그녀는 또 그들이 결혼할 두 명의 멋진 남자도 찾아 주었다. 그들은 그 후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제1장] 저주

p. 58-59 옛날에 용감한 왕과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들을 갖길 원했다. 마침내 왕비에게 딸이 생겼다. 그녀의 탄생은 왕국 곳곳에서 축하 받았다.

그 나라에는 일곱 명의 요정이 살고 있었다. 왕과 왕비는 그들에게 아기의 대모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요정들의 선물은 어떤 아기든지 완벽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들은 아기에게 우아함과 선량함을 줄 것이다.

p. 60-61 왕은 요정들을 위해 파티를 열었다. 일곱 자리가 있는 테이블이 있었다. 요정들은 모두 앉아 식사를 했다.

그때, 늙디 늙은 한 요정이 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50년 동안 홀로 탑에서 살고 있었다.

그 늙디 늙은 요정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나를 모욕해? 그들에게 한 수 가르쳐 줄 테다!”

젊은 요정이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그 늙은 요정이 끔찍한 일을 저지를 때 그것을 막고 싶었다.

p. 62-63 가장 젊은 요정은 아기에게 아름다움을 주었다. 다음 요정은 그녀에게 재치를 주었다. 세 번째 요정은 그녀에게 우아함을 주었다. 네 번째 요정은 그녀가 춤을 아주 잘 추는 사람이 되게 했다. 다섯 번째 요정은 그녀를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되게 했다. 여섯 번째 요정은 그녀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었다.

이제 늙디 늙은 요정의 차였다. 그녀는 화를 내며 말했다. “공주는 물레에 손가락을 베어 죽을 것이다.”

모두 깜짝 놀랐다. 젊은 요정이 아기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마. 저는 이 사악한 저주를 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공주님은 손가락을 베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공주님은 1백 년 동안 잠이 들 것입니다. 공주님은 잘생긴 왕자에 의해 깨어날 것입니다.”

p. 64-65 왕은 자신의 딸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법을 만들었다. 왕국 안에 물레는 하나도 없어야 했다.

15년 후, 공주는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로 성장했다. 어느 날, 그녀는 성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성 안 높은 곳에서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 방 안에서, 그녀는 한 노파를 보았다. 그녀는 손에 물레를 들고 있었다. 공주는 물레를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게 뭐예요?” 공주가 물었다. “이건 물레란다, 애야.” 노파가 말했다. “정말 예뻐요! 좀 봐도 되나요?” 공주가 물었다.

p. 66-67 공주는 손을 뺏다가 물레에 손가락을 베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잠이 들었다.

왕이 젊은 공주에게로 달려왔다. 그는 이제 그 저주가 현실로 나타났음을 알았다. 왕은 잠자는 공주를 아름다운 방에 눕혔다. 마법의 잠은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했다. 그녀의 볼과 입술은 빨그레해졌다. 그녀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렸다.

p. 68-69 공주의 목숨을 구한 착한 요정이 궁전에 와서 말했다. “공주가 텅 빈 성에서 깨어나면 슬퍼할지도 몰라. 그녀에게 일행과 하인들을 줘야지.” 그런 다음 요정은 많은 하인들을 잠들게 했다. 심지어 공주의 작은 개도 잠자는 공주 옆에 잠들게 했다.

왕과 왕비는 다른 궁전에서 살기 위해 떠났다. 요정은 나무숲이 성 주위에 자라도록 했다. 나무들은 아주 뻑뻑하게 우거졌다. 잠자는 공주는 바깥 세계로부터 안전했다.

[제 2 장] 멋진 왕자님

p. 72-73 1백년이 지났다. 이 나라에 새로운 왕이 있었다. 그에게는 항상 사냥을 하러 다니는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왕자는 숲 속에서 성탑들을 보았다. 왕자는 울창한 숲 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성 가까이 다가가자, 신기하게 덩굴과 나무들이 갈라졌다. 그는 숲을 통과할 수 있었다. 뜰 안의 모든 것이 고요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잠들어 있었다.

p. 74-75 마침내 왕자는 황금빛 방으로 갔다. 높은 침대 위에 그가 이제까지 본 중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다. 왕자가 공주의 손을 살짝 건드리자, 그 사랑스러운 공주가 깨어났다. 그녀는 마치 왕자를 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바라보았다. “당신인가요, 나의 왕자님?”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기쁨으로 왕자의 가슴이 뛰었다. “난 당신과 사랑에 빠졌소.” 왕자가 대답했다. 그는 공주에게 자기와 결혼해 달라고 했고 공주는 승낙했다.

p. 76-77 2년 후, 왕자와 공주에게 두 아이가 생겼다. 첫째 아이는 던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였다. 둘째 아이는 남자아이였는데, 데이라고 불렀다. 데이가 태어난 후, 늙은 왕은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왕자가 왕이 되었다. 새로운 왕은 전쟁터에 싸우러 가야 했다. “저 대신 다스려 주십시오.”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그녀는 원래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였다. 그녀는 성미가 나빴다. 그가 떠난 후, 그의 어머니는 왕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시골집에서 살라고 명령했다.

p. 78-79 왕의 어머니는 요리사를 불러 말했다. “난 내일 저녁으로 어린 던을 먹고 싶다” 그 불쌍한 남자는 자기가 도깨비와는 말다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들고 던의 방으로 갔다. 하지만 그 남자는 미소 짓고 있는 그 아이를 해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헛간에서 어린 양을 한 마리 골랐다. 다음 날 그는 그것을 저녁 식사로 준비했다. 도깨비 왕비는 그 양을 게걸스럽게 모두 먹어치웠다. “그 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군.” 그녀가 말했다.

p. 80-81 다음 일요일, 왕의 어머니가 요리사에게 말했다. “난 점심으로 어린 데이를 먹고 싶다” 요리사는 데이를 던과 함께 헛간에 숨겼다. 그런 다음 그는 부드럽고 어린 염소를 점심 식사로 준비했다. “그 앤 맛있군. 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구나.” 도깨비가 말했다. “이제 난 왕비를 먹겠다” 그래서 요리사는 왕비를 아이들과 함께 헛간에 숨기고 어린 사슴을 요리했다. 도깨비는 그것을 모두 먹어치웠다. 그녀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게 거짓말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에게 늑대들이 그의 가족을 잡아먹었다고 말할 것이다.

p. 82-83 어느 날, 도깨비 왕비가 산책을 하러 갔다. 그녀는 헛간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웃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젊은 왕비였다. 도깨비는 자신이 속은 것 때문에 화가 났다. “왕국에서 가장 큰 숲을 가져오라 그것을 안

마당에 놓고 뱀과 두꺼비, 그리고 거미들로 그것을 채워라.” 그녀가 말했다. “난 왕비와 아이들, 그리고 요리사를 그 안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 그리고 즐겁게 지켜볼 것이다!”

p. 84-85 다음 날, 도깨비의 하인들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들은 젊은 왕비를 숲에 던져 넣을 준비가 되었다.

갑자기 왕이 말을 타고 성문으로 들어왔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그가 다그쳐 물었다.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었다.

도깨비는 분노했다. 그녀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숲 안으로 뛰어들었다. 뱀과 거미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먹어치웠다.

왕은 한동안 기분이 언짢았다. 하지만 그의 슬픔은 차츰 사라졌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예쁜 두 아이들과 함께 있게 되어 기뻐했다.